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2,500만원 · 구성 : 3웨이 4스피커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사용유닛 : 우퍼(2) 20cm, 미드레인지 15cm, 트위터 2.8cm 에스타 2  
· 재생주파수대역 : 30Hz-25kHz(±3dB) · 임피던스 : 4Ω · 출력음압레벨 : 88dB · 파워 핸들링 : 300W(Long Term) · 크기(WHD) : 33×135×32.5cm · 무게 : 40kg

## 다인오디오, 사파이어 속으로 들어가다

글 김남

우리 시대에 스피커의 한 획을 그은 메이커를 고르라 한다면 다인오디오를 빼놓을 수 없다. 아마 탄노이나 JBL이 추구하던 외양의 위풍당당함에서 단연코 방향을 바꿔버려 소형 고급기의 본격적인 시대를 개막한 곳이 다인오디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순수 목재를 사용한 인클로저의 고결함도 한몫을 더한다. 나는 마치 뜨거운 욕실에서 막 나온 여인네의 살결과도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여러 번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색상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다인오디오의 인클로저 색상은 지금도 품위가 높다. 그러한 색상을 다른 메이커에서는 잘 따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뭔가 상당한 노하우의 기밀이 들어 있는 것 같다.

이 제품은 다인오디오의 30주년 창립 기념 모델이다. 북구의 작은

Dynaudio Sapphire

나라, 치즈만 생산해내는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사실은 세계 선진국 중의 선진국인데 그 나라에서 줄기차게 일관된 콘셉트로 제품을 내오다가 이정표처럼 그 최종점의 모델 한 가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제품 역시 크기는 보편적이다. 무게도 40kg에 불과하며 더블 우퍼의 크기도 20cm. 트위터는 우리 시대의 명작으로 인정받은 에소타2를 사용하고 있다. 가격도 요즘 시각으로 본다면 별로 비싸지 않은 편이며 인클로저는 동사의 일관된 수수한 월넛 계열에 비추어 본다면 좀 튀다. 그러나 몹시 아름답고 다소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30주년 기념작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고가에 화려하기 짝이 없는 제품을 한정판으로 생산하는 줄 알았더니 허를 찔렀다. 역시 다인오디오답다. 이 범주를 너무 벗어나버린 제품들이 어디 하나둘인가. 그러면서도 이보다 더 나은 소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니 인간이 만든 스피커라는 것은 결국 이 정도가 그 한계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제품도 1000세트 한정판이라고 한다.

원래 다인오디오의 고급 라인업인 C시리즈가 있는데 그 라인 중 하나를 특화시켜 기념작으로 만든 듯하다. 인클로저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유려한 광택은 래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놓은 것처럼 보인다.

이 기념작의 사운드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무게감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상복을 입고 있다가 정장으로 갈아입은 신사처럼 말이다. 묵직하면서도 반응은 더 빠르고 깊어졌다. 이울배반적인 특성을 지닌 다소 신비스러운 스피커이기도 하다.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나무랄 데가 없다. 녹음의 질이 좋지 못해서 때로는 소리가 함석판처럼 얽게 펼쳐지는 연주도 그 약점을 잘 감싸 안는 것을 볼 수 있다. 굉장한 포용력이라고 할 만하다.

이미 국내에도 다인오디오 계열이라고 불리울 만큼 추종 세력이 많지만 라인이 많은 만큼 어느 것이 다인의 표준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제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어느 한구석 약점을 보이지 않는 30주년 기념작의 명예가 그대로 보이는 명기이다. **A**



# 붉게 타오르는 음악의 따뜻한 본질

글 신우진

다 인오디오 30주년 기념작으로 발매된 사파이어는 이전의 파셋트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외형을 더욱 발전시켜 공정을 억제시키는 다면체 구조를 띄고, 컨피던스 시리즈와 유사한 구성이지만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사파이어를 완성하였다. 다인오디오가 국내에서 가지는 지명도나, 하이엔드에 있어서는 좀처럼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지 않는 브랜드이다 보니, 게다가 30주년 기념모델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당연히 화제를 일으키며 소개되었다. 가격적으로나 퀄리티 면으로나 컨피던스 상위모델인 C4와 비교가 되는 기종이기는 하다. 얼마 전 나는 C4에 대하여 스테디셀러 특집에 기고한 적이 있다. 유닛을 보면 C4가 더 충실하고 마감과 내용을 보면 사파이어가 우세하다. 필자도 두 스피커에 대한 글을 쓸 때면 본의

Dynaudio Sapphire

아니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규칙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나의 가설이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에소타가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하이엔드로의 면모를 갖춘다. 특히 과감하게 하위모델에 그 기술력이 이전되면서 중저가 스피커의 개선도가 상당하였다. AV 시장이 확대되고 디지털 사운드가 지배를 하는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깔끔한 음색이 주류가 되는 시장에 적응을 잘한 면도 있지만 나는 항상 조금은 아쉬웠다. 이전의 컨피던스 5가 만들어내는 깊은 울림이 조금 그림다. 점수를 매기자면 분명 올라간 성적이지만 월등하던 과목의 점수가 낮아졌다고 표현하면 요즘 같은 입시 시즌에 적합한 표현일까? 분명 광대역에 빠른 반응을 보여 주었지만 그런 깊이감이 아쉬웠다.

사파이어를 보면 C2나 C4 같은 컨피던스의 개량형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단종되어 버린 컨피던스 시리즈와 같은 구형 에소타를 사용하는 스피커를 개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용 유닛을 조절하면서 저역의 양감에 중점을 두고 1개로 줄어든 트위터에는 그릴에 흡음재를 붙여 억제시켰다. C4보다 절제되고 차분한 소리가 나오면서 깊이감이 생긴다. 사파이어는 컨피던스의 하이엔드화된 소리를 개발하기보다 잃어버린 감성을 되살리는 데 주력한 것 같다. 귀를 세우고 분석해 보면 그 스피드나 재생대역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 같은 능력은 숨기고 이전의 회귀적인 감성이 나온다. 음도 조금 도톰해지고 조금 어둡고 따뜻하다.

다인오디오는 시장을 선도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항상 주류에 서서 앞서 갔다. 유행은 항상 변화한다. 10년간 주류로 지속되던 무기질적인 오디오 음이 최근 하이엔드에서는 다시 온도감이 상승하는 징후가 많이 있다. 사파이어는 그 높아진 기후를 반영하는 것 같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녹음을 모니터하기 위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점이다. 다인오디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파이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A**

